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기관단총을 반드시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36(1947)년 9월 15일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집무실로 병기공장 일군들을 부르시었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경력에 대하여 로해하시고 해방전에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오래동안 일하였기때문에 무기수리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오늘 동무들에게 중요한 과업을 주라고 불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그들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나라를 자체의 힘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정규무력을 창건하라고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군인들을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러시고 우리자제의 힘으로 현대

적인 무기를 생산하여 군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군인들을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는 없다고, 무기는 값이 매우 비싸고 또 다른 나라에서 주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빚을 지고라도 사올수 있지만 안주겠다고 할 때에는 손을 얹고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었다. 《기관단총을 만들수 있겠습니까?》 뜻밖의 물음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겨우 무기수리나 하는 공장에서 보통무기도 아닌 현대적인 기관단총을 만든다는것이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갖 조업한 공장에 오시어 가르쳐주시한 할일 유격대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

쟁기공을 생각하며 그들은 만들수 있다고 대답을 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믿음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동무들이 해방전에 병기제조소에서 무기수리를 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으므로 설비와 자재만 대주면 결의만으로 기관단총을 능히 만들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고 기관단총을 만들자면 먼저 부속품들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이 완성되면 그 도면을 여러 기계공장들로 나누어 주어 부속품을 깎게 하고 병기공장에서 그것을 가져다 기관단총을 조립할데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시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기관단총은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군님, 우리 힘으로 꼭 기관단총을 만들것습니다.》 공장일군들의 신심에 넘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하시며 김철에게 북조선인민위원회 산업국에서는 기관단총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 병기공장 일군들에게 한 20일동안 달라붙어 기관단총을 한정 만들어내 달라고 당부하시었다. 우리 정규적혁명무력의 무장장비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심장에 새겨안은 병기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 수행할 비장한 결의를 가다듬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개발사업을 벌려 빠른 시일내에 자기들의 손으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

- 총련에서 전형창조운동 활발히 전개 -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해 9월 총련본부위원장 회의를 제25기 제1차회의에서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을 벌려나갈것을 결정하는데 이어 올해 3월에 진행된 제2차회의를 계기로 전조직이 《강령적서한접수1》등을 전형창조의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2개월집중전》을 총결기해나갔다. 현재는 주요 총련본부위원장회의(4월 26일)를 계기로 총련중앙과 본부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 총포세로 이 운동을 벌려나가고있다.

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있다. 지난해 10월 총련 도교도 본부가 모든 조직, 모든 분야, 모든 전선에서 새 경험과 새 성과를 이룩하여 전형창조운동에서 앞장서나갈 결의를 안고 운동에 열기해나선것을 비롯하여 총련본부, 지부들이 전형창조의 기본주제를 정하여 운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형창조의 주제를 정한 단위에서는 동포생활상담센터사업을 제정비, 정상화하여 동포들에 대한 봉사목회활동을 결성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있다.

민족교육사업과 관련한 전형창조의 주제를 정한 단위에서는 학생, 원아인입사업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민족교육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대상자들과의 역할을 굳이 없게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동포방문사업을 늘려나가고있는 단위들도 있다. 이처럼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결의를 안고 전형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전형창조운동이 시작된 후 각급 조직에서는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동포제일주의를 사상적자사로 틀어쥐고 서한에서 제시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4대 과업에 따라 일군들과 동포들의 주동적이며 창조적인 의견과 단위별실정에 맞게 전형창조의 기본주제를 설정하고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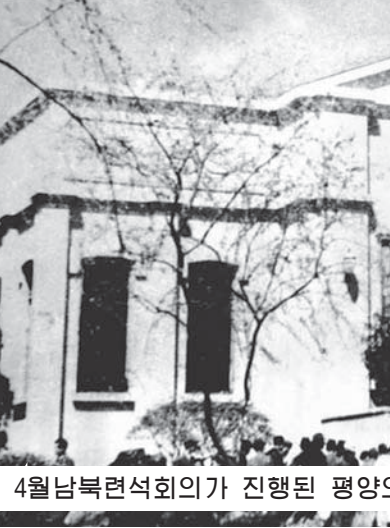
본사기자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그때 북으로 쏠리는 민심을 타고 완고한 민족주의의 자이며 남조선의 우익정객의 거두의 한사람인 김구선생도 평양으로 오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양으로 찾아오는 김구선생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이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앞에 놓고 제일 먼저 생각하신것은 안신호 선생이었다.

자신 희망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지난날 죄를 지어오던 잘못을 뉘우치고 예국의 길로 나가겠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나가는 것이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립장이라고 하시며 부위원장선생이여 장군님

인품에 크게 감복한 김구선생이였지만 고집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남보다 안신호를 만나보아야겠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안신호선생은 김구선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 김구선생과 조완구, 엄항섭, 안우생 등을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안창호의 고향집으로 안내하였다. 한평생 공산주의에 역행한 우익민족주의자의 누이동생, 선행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이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된 종교의 독실한 신자가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여성동맹의 지도간부여, 북조선최고법원의 대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앞서 김구선생의 공산주의에 대한 의혹은 송두리채 박산나고말았다.

4월말 어느날 안신호선생을 다시 만나주시한 희망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구선생과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련하게 말을 잘해주었다. 그리고 높이 치하하시는데 대하여 알려주시며 무척 기뻐하시였다. 나무는 큰 나무덕을 못보아도 사람은 큰사람의 덕을 본다. 안신호씨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그 광휘로운 빛과 한량없는 은정을 받았기때문에 안신호선생은 하느님앞에 자기 속죄나 하면서 매세의 천당만을 바라던 그리스도교 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 선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민족의 대단합실현에 이바지하는 책임적인 사업도 감당할수 있었던 것이다.



가 스스로 뉘우치도록 잘 일깨워주시라. 같은 민족의 정으로 따듯이 대해주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잘 이야기 해주면 김구선생이 느끼는 것이 많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튿날 안신호선생을 만나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지금까지의 기존개념으로는 갚을 수 없는 제일 좋은 정치리념이라고 본다. 장군님과의 사업정의를 다는 알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의 민족정원모두를 바른길로 이끌어 애국자로 키우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선양하며 온 국민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게 하자는것이 아니라졌는가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게 오빠는 애국애족이니, 독립운동이니 하면서 덮어놓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라고 우리 민족을 무력한 존재로 강요하며 대국민을 송배했다. 아마 오늘 북의 현실을 보았더라면 오빠도 가슴을 치면서 눈먼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운동을 다시해야겠다고 일어섰을것이다.

안신호선생은 4월 27일 오

총련 제 13 차 중앙어머니대회 도 교에서 진행

총련 제13차 중앙어머니대회가 얼마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기쁘게 받아들여주시고, 애국애족운동으로 확고히 전향시키며 민족교육고수 운동 위한 투쟁을 통하여 여성운동 일군들과 열성자를, 세세대 어머니들을 여성동맹의 핵심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되었다. 《참된 어머니사랑은 민족교육으로부터》, 《사랑하는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에는 재일본조선민녀성동맹(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와 녀성동맹본부 일군들, 동포녀성들이 참가하였다.

그는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녀성들을 자녀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 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환을 제일 품으며 가꾸는 원아사모로 높이 내세워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애하는 원수님의 소중한 의도로 자녀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시려는 이국의 모진 칼바람을 이겨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끝까지 지켜나야 하며 이 성스러운 애국투쟁은 녀성동맹과 동포녀성들이 앞장서서 이루어야 한다는 강령을 강조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이 민족교육고수 운동을 위한 사업에 모든 힘,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여 새로운 궁경, 새로운 성과를 창조할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동포녀성들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녀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하며 그 첫 스승인 어머니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가 아이들에게 꾸준히

이어질 때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마련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민족교육의 진가와 민족교육을 기어이 지켜나갈 동포어머니들의 굳은 결심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강연도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맺땀한 조선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길에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로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축하공연을 있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태양의 품에 안겨 (2)

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또 해방후 3년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사업한 경험도 있으며 김구선생과 잘 아는 사이인데 김구선생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가 물은 때는 보태지도 않다고 해방후 오날까지 느끼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해주면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4월 20일 평양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뛰어난 도량과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예수적인 《협정》들을 통한 식민지통치의 강화

미국은 남조선에 《미군정》통치기구의 직접적 언장으로 피휘정부를 조작하고 《독립국》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통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협정》의 간판밑에 침략적이며 예수적인 《협정》을 강요해나갔다. 미국은 1948년 8월 24일 《파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과 1948년 9월 11일 남조선미국 《경제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을 강압체결하여 군사경찰력에 대한 지휘통수권은 물론 경찰,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 지배권을 교활하게 《합법화》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후 《마살안》에 기초한 이른바 《부흥전조》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협력법》과 군사 《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르는 침략적인 쌍무협정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지배권을 더욱 확대하였다. 미국은 《경제협력법》에 따라 1948년 12월 10일 조작한 남조선미국 《경제원조협정》이라는것을 통하여 그들의 침략전쟁정책과 식민지화외의 요구에 맞는 조건에서만 《원조》

가 제공된다것을 로골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배권과 내정간섭을 《합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협정》에 근거하여 《경제협조처 주한사절단》이라는것까지 들어밀어 《원조대표》의 명목밑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직접 현저하게 지휘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군사고문단》에 의한 지배형식을 취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본 데로부터 1950년 1월 26일 《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을 조작하여 군사적폭력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이러한 《협정》들은 남조선에서의 실제적통치권의 《법적단보》로 되였으며 미국은 이러한 《법적단보》를 리용하여 조작한 식민지적지배기구를 통하여 남조선피정권을 배후에서 지휘, 통제, 감독, 조종하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남조선에 등지를 둔 미국의 현실지배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이 바로 《주한미대사관》이였으며 미국대사는 남조선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실제상의 총독행세를 하는 남조선정치의 막후지배

로 광 력

오늘은 남조선에서 6.3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59년이 되는 날이다. 6.3봉기는 일본반동들의 제철책동을 짓부시며 극악한 시대매국노인 박정희군사파쇼당을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제반파쇼애국투쟁이었다. 1964년당시 박정희군사파쇼당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으며 식민지적인 남조선일본 《회담》을 라결지으려고 서둘러왔다. 박정희군사파쇼당의 반민족적인 책동에 격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대중적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지퍼올렸다. 반데후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3월 12일부터 제6차 남조선일본 《회담》의 막이 열리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투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500여명은 남조선일본 《회담》반대 성토투쟁을 가치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사사관(1905년)에 《보호조약》을 강요했던 일본제국주의가 갑진년(1964년)에 또 하나의 《보호조약》을 강요하려고 날뛰는데 대해서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자본주의 시너

오늘도 울려오는 6.3 봉기의 메아리

가 되어 굴욕외교를 감행하는 박정희군사파쇼당의 매국적 죄상을 날날이 고발하였다. 성토투쟁이 끝난 후 청년학생들은 《대일굴욕외교반대》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 라오트 투쟁의 불길은 로연의 불길처럼 타번져 대구, 부산, 광주 등 남조선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범죄적인 남조선일본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이르러 최고조로 이르렀다. 이날 서울시안의 대학, 중고등학교학생들과 수만명의 시민들은 군사파쇼 《정권》의 발악적인 탄압을 물리치고 중앙정부를 일점정착 《국회》의 사당을 포위하였으 며 청와대에까지 옥박을 들었다. 시위자들은 경찰 848명을 싸늘하고 서대문경찰서, 안양동, 이천동, 충정로, 동대문파출소를 비롯한 8개의 경찰파출소를 파괴소각하였으며 경찰차동대본부를 점령하였다. 또한 철차와 《메도볼도》, 공운트럭을 빼앗아라고 시위시정, 성동소방대, 중앙선거사무소, 경찰부기고 등을 습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 또는 점거하여 교 학생탄압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파쇼경찰을 완전

히 제압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군사파쇼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6월 3일 서울지구에 파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학교를 폐쇄하였으며 일체 시위, 집회를 금지시키는 한편 언론, 출판에 대한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고 수많은 애국적인 학생, 교수, 언론인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남조선전역의 대학들에 《방학》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광주, 춘천, 부산, 인천, 목포, 대구, 청주, 음성, 천안 등 지방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과 육박전을 벌리면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굴욕적인 남조선일본 《회담》을 반대하여 3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을 비롯 42개 지역에서 53개의 대학과 193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 38만여명과 많은 시민들이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 6.3봉기에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 인물은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권》이라도 전변에 내걸고서 평화로써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쇼당의 파쇼통치체계를 밀부리려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군사파쇼당과 일본당국사이에 조급하게 벌어지고있던 범죄적인 회담의 《조기라결》책동

을 짓부셔버렸다. 남조선에서 6.3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제당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과거사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해결력을 워해한발자국도 내걸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느니, 《과거 쌍방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느니 하는 허드렛말을 늘어놓으며 일제강점기 옹변죄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친연속적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리해한다.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심나라것들과 남조선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미일남조선 《화장적협정》의 가동과 《북미사일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 미국과 채택한 반공화국핵전쟁포의 산본인 《위성본선》에 일

본의 참가를 합의하는 등 근시대국화와 해외평화에 열이 오른대로 오른 사무라이후예들에게 조선반도체침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남조선에 상시배치수준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상전과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 불장난을 그칠새없이 벌리며 민족의 머릿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윤석열역적제당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친핵적, 친미친일사대매국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회색의 사대매국노의 천후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책동과 윤석열역적제당을 비롯한 민족반역세력의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자주적인 새정치, 새 생활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것은 물론 불행과 고수, 재난의 심연속에서 더욱 깊게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6.3봉기 59년이 되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찾는 심각한 고평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외세에 아무굴종하면서 남조선에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제당을 특등친미친일매국노로 단죄규탄하면서 반윤석열, 반 《정부》면에서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철남